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

* 일시 - 5월 10일(주일) 오후 4시 / 본교회
* 제70대 회장 취임 - 조상용 담임목사

[알 림]

1. **어린이주일** -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 5월 교회생활 안내**

1. 10일(주일)부터 주일학교, 주일오후예배, 수요예배(1,2부), 목요영성기도회를 시작합니다(주일1부 제외).
2. 12일(화)부터 카페 필그림하우스는 주중에만 운영합니다.
3. 식당운영, 찬양대, 화요중보기도회, 목요전도대, 목장모임은 종전대로 당분간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4.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합니다.
5.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5월 31일(주일)부터 모든 교회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우 동정]

1. **소천** - 다문화가정 전가을 성도 시모 / 25일(토)

[담임목사 동정]

1. **동대전제일노회 교역자회** - 4일(월) 오전 11시 / 주사랑교회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고윤설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부 목 사 고윤설 오상옥 김종명
전 도 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직 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임헌성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응 최영일 윤재룡 안철호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5. 3 (NO. 62-18)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 배 사 역
2. 목 장 사 역
3. 가 정 사 역
4. 기 도 사 역
5. 제 자 사 역
6. 미 래 사 역
7. 복 지 사 역
8. 전 도 사 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어 린 이 주 일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오후 4시
* 입 례 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어둡고 냉랭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홍순영** 장로(2부) / **이원명** 장로(3부) / **이대영** 장로(4시)		
성 경	마 14:13-21		
설 교	**예수님의 기적(16) :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 금	272장		
광 고	인 도 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 회 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 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예배
오후 2:00	오후 4:00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찬양팀
* **기도:** 김종렬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롬 4:13-23
  "그리스도인의 자유"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목요영성기도회
새벽 5:00 (본당)	저녁 8:00 (본당)
사사기 - 담당 교역자 -	- 코로나19 전염병 방지를 위해 쉽니다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2 부	이원명 장로
	3 부	이대영 장로
주일새벽	금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이·취임식
수요예배	1 부	이명자a 집사
	2 부	서정순b 집사

안내위원	4 여 전 도 회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율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11: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오전 9:00
			청년회	오후 2:00

수	1부 예배	오전10:00
	2부 예배	저녁 7:30
목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4일)	김종명 최영희
화 (5일)	박숙희 송정숙
수 (6일)	고윤설 조정옥 공종호 심윤중
목 (7일)	이영학 안중근 국은희
금 (8일)	임헌성
토 (9일)	황덕순 이종옥 조영희
주일 (10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 시 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3일(주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성경	대하36-스2	스3-5	스6-8	스9-느1	느2-6	느7-9	느10-12

♠ 환우

☞ 3교구

* 나승문집사(남3-1)모친, 남한순집사(판암)시모 - 노환 / 대청병원

5월 행사 안내

1일(금)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10일(주일)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11일(월)~12일(화) / 동대전제일노회 정기노회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 분	시 간	담 당 자	기 간	장 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 정 옥 전 도 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 명 순 전 도 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 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 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 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7대 준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당 입장 시에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주일 교회중식과 주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4.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6.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후·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투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싱가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응)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촐롱체첵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헌, 하헌, 성헌)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천강민 /몽 골 ·장석현 /태 국 ·이수현 /필리핀
·김재정 /태 국 ·김도형 /태 국 ·장천득 /캐나다
·임태호 /태 국 ·박정선 /태 국 ·오세연 /남아공
·이성율 /키르기스스탄 ・총회세계선교회(GMS)
・싼띠팝선교회(SMI)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타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흑룡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15) :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기적(막3:1-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전도·교육·치유사역이라고 말한다. 이 3가지 사역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전인 구원사역이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과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배워보자.

1.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려 내십시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기에 한 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른 날 고쳐도 되는 급하지 않은 병이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다. 바로 이처럼 오늘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즉시로 해야 한다. 선한 일은 직감적이고, 즉각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나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실천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최우선으로 행하자.

2. 선한 의도를 갖고 살려 내십시오.

(2-3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 그 행동을 주시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서로 죽이고 반대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이 두 관점은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 교우들을 대할 때,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3.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살려 내십시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기에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며, 거칠게 반대하기도 한다. 선한 일 하면서 좋은 말 들으려는 생각은 아예 말아라. 선한 일에 반드시 비난이 따르게 마련이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방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할 일을 밀고 나가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람을 살리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자.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8일(금)	찬 312장	삿 20:17-28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20대 1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첫 전투에서 2만 2천 명, 두 번째 전투에서 1만 8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합니다. 이 전투 결과를 통해 베냐민의 악행을 심판하러 모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습니다(23절). 그리고 두 번째 패배 후에 그들은 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26절). 금식과 제사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단지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표한 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달리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28절)는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9일(토)	찬 342장	삿 20:29-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얻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세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이번에는 위장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전과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는 척하면서 베냐민 사람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낸 뒤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베냐민 자손은 승리의 경험을 맹신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계략에 속고 맙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전열을 갖췄고(30절), 개전 초기에 30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이전의 승리를 떠올리며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고 확신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베냐민의 진술(32, 39절)은 그들이 이전의 경험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전에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이 성공 신화는 그들의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은 결국 덫이 될 뿐입니다.

10일(주일)	찬 423장	삿 20:36-48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성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한 베냐민 지파가 광야로 도주하지만 주력군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42절). 결국 기브아 동쪽,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길, 기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베냐민 군대는 거의 멸절됩니다. 또한 그들의 성읍 역시 과거 가나안 민족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당했던 것처럼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모두 죽고 불타는 진멸을 당합니다. 앞서 두 차례 전투의 승리를 통해 잠시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나치게 흥분해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처벌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했던 데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작은 한 여인의 죽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고 양쪽 진영을 합치면 6만 5천 명 이상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누룩처럼 급속히 팽창해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은자 강희주(김종분) 구왕성 권영숙 김경덕(이수진a) 김동춘(유덕자,김은지) 김두경(김경선) 김미자a 김선자 김선철(이인자) 김수종 김연수 김영미 김옥진 김융기(정윤옥) 김인숙 김정임 김정자a 김종범(양현주) 김주원(조수희) 김충규(박순자b) 김현철(조경희) 남궁예순 남분자 노정남(조정옥) 류순례(김병출) 류재은(이종순) 박영만(임형숙) 박옥자 박은희 박정자b 박종민 박종보 박종순a 성봉규(이명선) 송경호(김옥희a) 송은규(임명숙) 송주현 순찬호(이영숙b) 안기문(유인자) 안영세(한혜숙) 안철호(이영숙a) 양주선(정태옥) 유춘성(황안순) 유현아 유화자(편용출) 윤명심(이상규) 윤재룡(송영희) 윤종명(전숙인) 윤창수(김경순) 이길천(윤석의) 이본구(길준숙) 이선옥 이성수a(장미) 이수진b(민병곤) 이숙자 이신순(서정자) 이영학(김성순) 이용정 이율성 이은진(김대용) 이은희 이인창(임유례) 이재균(김현진) 이창익 인치경(김영재) 임몽룡(양홍순) 임영숙 임춘수(이종란a) 임헌성(유정화) 장수권(임형선) 장영애 전승영(오계숙) 정상남(이은숙) 정윤식(손석남) 정태응(윤정옥) 정희성(김윤정) 진재주(박향숙) 최순임(김미희) 최영일(순정숙) 최용호(박미순) 최윤호 최현순 편무화 하숙희 한순옥(길광내) 함수경 홍근성(김동선) 황현숙 무명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금자 김영천(남정혜) 김태환 김현철(조경희) 김형민(윤혜성) 김혜자 박명환(김은주) 박미혜 박용화 박일용(조영희) 성봉규(이명선) 손석남 송주현 유은정 육종권 이관희 이길천(윤석의) 이신순(서정자) 이인창 임용식(우현주) 정기조(이종옥) 정희성(김윤정) 조성일 채기병 최영란b 최진수 현연옥 무명4

선교헌금

강병우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곽민근(박영자) 구왕성 권영숙 길준숙 김동선 김두경(김경선) 김미자 김선자 김연수 김영미 김영숙 김예원 김예현 김융기(정윤옥) 김정순d 김정윤 김정임 김정자 김주원(조수희) 김중섭(임희수) 김충규(박순자) 김현숙 김현철(조경희) 남궁예순 남분자 류순례 류재은(이종순) 박금현 박덕천(강순애) 박명환(김은주) 박미혜 박병란 박순자 박영만(임형숙) 박정자b 백승주(김옥진) 서기홍(하복임) 서호석(김민희) 성봉규(이명선) 손부영 손석남 송경신 송경호(김옥희) 송원화 송은규(임명숙) 순찬호(이영숙) 안영세(한혜숙) 양홍순 오상옥(김진남) 유현아(유시후) 유화자 윤상덕(양길용) 윤상애 윤석의 윤재룡(송영희) 윤종명(전숙인) 이관희 이길천 이대성(송미옥) 이래민 이본구 이상우(이성희) 이선옥 이성수(장미) 이숙자 이신순(서정자) 이용정 이용희 이율성 이은숙 이은진(김대용) 이은희a 이인창(임유례) 이재균(김현진) 이종규(이혜실) 이종민(윤수진) 이지영 이춘권(김연자) 인치경(김영재) 임영숙 임춘수(이종란) 임헌성(유정화) 장윤겸 전승영(오계숙) 정경숙 정상남(이은숙) 정태응(윤정옥) 정하민 정하영 정희성(김윤정) 조상용(김혜경,조성환,조은혜) 진재주(박향숙) 최민지(최재민) 최순임 최용호(박미순) 최윤호 편무화 하숙희 한순옥b 황현숙 6남전도회

부활감사헌금

권미옥 김정자a 김주원(조수희) 류순례 송경신 정경숙 정희성(김윤정) 무명

교회사랑 천사헌금 김융기(정윤옥) **특별헌금** 청춘대 **장학헌금** 왕은식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4일(월)	찬 288장	삿 18:21-31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미가는 신상을 약탈당하고 제사장도 도망갔음을 알고 약탈자들을 추격했지만, 단 자손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미가에게 왜 왔느냐고 물으며 오히려 위협하는 모습은 폭력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도둑질했던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떠돌던 레위인을 데려다가 전속 제사장을 만들었던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얻지 못하고, 단 자손들에 의해 그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 자손의 라이스 점령은 그저 약한 자를 강탈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강탈한 땅에 강도짓으로 얻은 미가의 신상을 세웠으니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 단 지파의 신당은 실로에 있는 성소와 대립돼 이후 이스라엘의 화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상은 십계명이 금지한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 영적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5일(화)	찬 218장	삿 19:1-21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도, 앞서 살펴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처럼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첩을 뒀고, 행음해 떠난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3절)와 함께 갈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간음을 율법대로 처리할 영적 권위는 없었습니다. 한편, 베들레헴의 장인에게서도 자신의 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사위가 자신의 딸을 다시 데리러 와 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사위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왕이 없을 때' 즉 '영적 아노미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거민들과 달리 이 노인은 율법을 실천했고,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우리의 울타리에 들어온 나그네를 환대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6일(수)	찬 503장	삿 19:22-30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노인의 우려는 결국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능욕하려는 악행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남색과 강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나그네를 향해서까지 악행을 일삼는 기브아의 타락상은 불로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떠올리게 합니다(22절). 그러나 문제는 이 일을 당한 레위인도 첩이 대신 윤간을 당하도록 밖으로 끌어내는 등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상잔을 벌이는 비극의 시발점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는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레위인은 열두 지파 모두에게 시체의 조각을 보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분노한 레위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분노가 퍼졌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평화를 심을 것인지, 불화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7일(목)	찬 338장	삿 20:1-16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인이 보낸 시체 조각을 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1절). 그는 첩과 하룻밤을 묵으려고 기브아에 갔고,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가 묵고 있던 집을 포위했으며,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고 보고합니다(4~5절).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의 손으로 첩을 이끌어낸 것, 첩이 윤간을 당하는 동안 그 집에 있었던 것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빼고 말합니다. 특히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덧붙이는데, 여기서 '기브아 사람들'(5절)은 불량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든지 분노에 의한 흥분 때문이었든지, 결국 레위 사람의 부정직한 보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합심해 기브아를 칠 결심을 하도록 공분을 자아냅니다. 나와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합니까? 내게도 레위 사람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